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조중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144호 [루체 제23096호] 주제99 (2010)년 5월 24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7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삼지연군과 백암군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삼지연지구의 전적지를 돌아보면서 빛나는 혁명전통은 조선민주의 위대한 정신력의 본원천으로 뛰어나온다.

그이께서는 백암땅을 하루빨리 나라의 굴지의 감자생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에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또한 새로 건설된 삼지연장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인민을 위한 훌륭한 공장이 일떠선 대에 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백암군 덕포지구에 일어서고 있는 대규모의 감자농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전설영토를 표해하고 농장건설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그이께서는 백암땅을 하루빨리 나라의 굴지의 감자생산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에

【조선중앙통신】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2차 전체대회 진행

【도쿄 5월 23일 조선통신발전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2차 전체대회가 22일과 23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정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공화국기를 배경으로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 만세!»,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나붙여졌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강령적 말씀을

판결하여 2012년까지 재일 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를 펼쳐

자!», «조국인민들과 마음과

숨결을 같아하여 민족교류를 비

롭한 총련 전반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자!»라는 구호

들이 나붙여졌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경영 전통을 상징하는 백두산과 조선회관그림판이 걸려있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대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

임위원회 책임부의장과 남승우, 랑수정, 리기석, 배익주, 고우수, 박구호부의장들, 홍인홍, 조현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총련중앙고문들, 재일조선인민주주의전선 중앙감사위원들이 소개되었다.

</



# 애족애국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재일 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2차 전체대회에서 한 허종만책임부의장의 보고

대의원 여러분!

총련 제22차 전체대회는 우리 조국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타월한 평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을 자랑하게 맞이하기 위한 혁사적 충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나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직되었습니다.

총련 제22차 전체대회는 애족애국의 선각자, 세계 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영예를 떨쳐온 총련이 주체의 로선과 전통, 자랑한 업적을 대를 이어 계승하며 모든 활동을 새 세기의 요구와 동포의 지

향에 맞게 혁신하는 대회라는데 그 혁사적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강령적인 말씀을 높이 받들고 애족애국운동의 전반적 대회를 구축하는데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제일조선인운동의 혁사적 평화를 전망하면서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치기 위한 활동지침을 토의,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조국과 더불어 2012년에 총련과 제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를 기이며 그 기세로 애족애국사업전반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새롭게 전진하는 새 세기의 요구와 동포의 지

## 1. 총련 제21기 사업의 총화에 대하여

총련의 21기 사업기간은 장구한 재일조선인운동력사에서도 각별히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선군평도로 조국의 정치사상적, 군사적 위력을 만방에 파시되고 우리 민족의 세기적 숙망인 강성대국 건설에서 비약적인 전진이 이룩되었으며 우리 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치정세가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칠때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 주시었으며 2012년을 향한 위대한 혁사적 시기에서 총련도 조국인민들의 충진군에 보조를 맞추어 총련에 국운운동을 풀기 차게 벌리도록 응징깊은 손길로 이끌여주시었습니다.

총회기간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계시면 이긴다는 불懈의 신념과 불퇴전의 의지로 우리 반동 세력들의 책동을 파악해 맞받아쳤고 《동포되찾기 100일간 운동》과 기충조직강화를 중심으로 내세운 《100일 운동》, 제22차 전체대회를 새 전성기를 개척하는 도약의 계기로 맞이하기 위한 《9·0 운동》을 펼친上で 애족애국사업을 힘있게 전진시켜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군중적 대회를 구축하는 사업과 3대에 국파수행에서 종래에 없었던 귀중한 전진과 경험을 이룩하였습니다.

1) 우리는 총련을 각계각층의 광범한 동포들을 망라한 애족애국의 동포군중단체로 꾸리는데서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본부와 지부们都 꾸려진 《동포되찾기 운동추진위원회》가 비전임 일군들과 동포전문가, 협동동포들로 확대되고 추진위원회사업이 구체화되어 대중운동전개에서 지난 시기 없었던 새로운 경험에 이룩되고 이 운동을 범동포운동으로 밀고 나가기 위한 조직적세가 더욱 훈련히 다져졌습니다.

《아이키 키우기 지원 활동》에서는 《엄마와 어린이 모임》이 많은 지부들에서 조직되어 총련이 《아이키 키우기 지원금》을 우리 유치원 원아들에게 지급하는 등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민족결혼성사활동도 조직적인 관심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련과 경제기관들은 동포상공인들을 둘러싼 정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속에서 그들의 경영활동을 성장성으로 도와주는 사업을 힘껏 풀었습니다.

2) 우리는 민족교육사업앞에 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어려운 형세를 역전시키는데서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총련 각급 기관과 일군들, 학부모를 비롯한 혁성동포들은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을 고수하기 위하여 불퇴전의 각오로 떨어나섰습니다.

일군들과 학부모들, 새 세대를 비롯한 동포들과 학생들은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원대상에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부당한 차별정책을 당장 겪어치우게 하기 위한 투쟁에 광범한 청소년인 일본인들을 불러일으켜 우리를 지지하는 사회적여론을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총련 각급 기관과 교육일군들, 혁성동포들은 올해 《민족교육을 강화하는 해》로 빛내임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민족교육사업에서부터 열어나갈 결심으로 출발기해나섰으며 이에 있어서 지난 4월 25일에 가진 《울해를 민족교육을 강화하는 해》로 빛내임으로써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민족교육앞에 가로놓인 난국에 맞서 형세를 역전시키는 것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것은 재일동포 사회의 존속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도를 담보하는데서 각별히 중요 한 의의를 가집니다.

3) 총련이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는 총련지부와 분회, 단

선군사상과 평도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계통적으로 학습하였으며 사업실적을 놓고 조직생활에 대한 통화를 사상적으로 심화시킴으로써 일군대 오의 일심단결과 조직의 활동력을 부단히 강화해나갔습니다.

각급 학교 교육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교육학적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며 맑은 학생들을 유도하는 일로 육성하기 위해 전집전력을 더합니다.

총련은 민족교육의 주체적, 민족

적성격을 고수하고 교육의 질을 높임없이 높이미 일본의 실정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그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각급 학교 교육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교육학적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며 맑은 학생들을 유도하는 일로 육성하기 위해 전집전력을 더합니다.

총련은 민족교육의 주체적, 민족

적성격을 고수하고 교육의 질을 높임없이 높이미 일본의 실정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그 내용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1) 《동포되찾기 운동》을 한편 더듬 분화, 활성화해나갈데 대하여

① 《동포되찾기 운동》을 한편 줄을 이은 제일동포들을 대상하는 범동포운동으로 벌리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일본당국의 천안부단한 반공화국제재로 인한 제일동포들의 인권침해의 진상을 풍로하여 국제적인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제일동포들에 대한 지지증원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원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하는 일본당국의 체사율을 올리거나 둘러싼 정세발전추이에 대한 사업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② 《동포되찾기 운동》의 폭을 《민단》호의 제일동포들을 대상하는 범동포 운동으로 확장해나갈 것입니다.

③ 《동포되찾기 운동》을 한편 줄을 이은 제일동포들을 찾아가 그들의 민족적 특성을 더합니다.

각계각층 동포들 속에서 민족성계 운동을 활발히 벌릴 것입니다.

세 세대를 비롯한 광범한 동포들 속에서 슬기로운 우리 혁사와 문화를 배워주는 여러 교실을 개설 운영하며 민족자주의식을 곳곳이 이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④ 《동포되찾기 운동》을 한편 줄을 이은 제일동포들을 찾아가 그들의 민족적 특성을 더합니다.

각계각층 동포들 속에서 민족성계 운동을 활발히 벌릴 것입니다.

세 세대를 비롯한 광범한 동포들 속에서 슬기로운 우리 혁사와 문화를 배워주는 여러 교실을 개설 운영하며 민족자주의식을 곳곳이 이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⑤ 《동포되찾기 운동》을 한편 줄을 이은 제일동포들을 찾아가 그들의 민족적 특성을 더합니다.

총련은 민족교육의 주체적, 민족

적성격을 고수하고 전집전력을 더합니다.

총련은 민족교육의 주체적, 민족

# 인민을 위한 헌신적 복무에 값 높은 삶이 있다

은 하 지 도 국 일 군 들

당장 견 65회를 맞는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정세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 치고 있는 오늘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은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분발하여야 한다.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은 하지도국 일군들은 지난 기간에도 그려졌지만 최근년간 생활을 비약적으로 정성시키면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소문없이 큰일을 하고 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일군들에게 있어서 보람있는 생활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면서 인민의 사랑과 밀을 속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윤치도국이 당시 경공업혁명방침을 편찰하는데서 앞장서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그 나날은 은하지도국 일군들이 참된 충복으로 성장해온 날이기도 하였다.

오늘 지도국아래 모든 공장들은 인민들이 좋아하고 살이 먹을 보는 공장으로 되었다. 거기에는 당시의 믿음과 기대로 보답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정해온 전성웅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이 깃들여 있다.

전성웅동무가 국장사업을 시작한 것은 《고난의 행군》 시기였다. 그는 지도국아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어지 하는 공장으로 만들 대단한 목표를 세우고 일군들과 힘을 합쳐 설비의 현대화를 비롯한 필요한 사업들을 힘 있게 밀고나갔다.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임에 어려운 공장을 봉사하고는 뜻구치는 경쟁을 억제하지 못하게 밀고나갔다.

그들 모두의 가슴속에 얼마나 뜨거운 것이 고마워 고맙다.

현 할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이 신작적으로 대중을 힘 있게 불리울 것이다. 부국장 김성준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현장에서 협의회를 열고 대중의 심장속에서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현대파학기술에 의거하여 필요한 부속품들과 지구들을 차제로 만들어쓰기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세웠다. 공장을 찾았던 공기기지와 수리기지를 틈틈히 꾸리었으며 빠른 기간에 설비들을 개혁하기 위한 우리식의 기술혁신안도 힘 있게 내밀었다. 몇몇 동안에 지도국에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개선이 높은 수준에서 힘 있게 추진되었다.

그 나날 전성웅동무는 남보다 점도 적게 자고 미리도 많이 쓰고 땀도 많이 흘리면서 일에 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그 믿음을 그 사랑에 기어이 보답합시다!»

우리 일군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밀을과 사랑은 얼마나 깊고 뜨겁게 달리였다.

이룩한 성과앞에서 놀 만족을 모르는 그였다. 설비개선이 힘 있게 추진되자 그는 수송제 등을 풀기 위한 사업에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일군들이 뜨울 때 까지！」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끌고나가는 듯이 평가해주시며 일군들을 더 높이 힘내고 그 사랑에 기어이 보답합시다!»

그는 공장에 도착한 즉시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 말씀 내용을 향토별로 적어가며 공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하나 하나 알아보고 대책도 세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 말씀 판관에 떨어져나온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을 고무해 주고 돌아오면 그는 끌어내려온 일군들의 사상정신적 풍모는 더 높아졌다.

병원에 후송되어 의식을 차린 순간 그의 일에서 뛰어나온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왔다.

하나의 목표를 절경하면 신들께 봄새도 없이 또 다른 목표를 내세우고 완강하게 봄진하는 책임일군, 출장길에 화물차동차에서 눈비를 맞으며 한밤을 지새우는 자재일군들,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어떻게 하면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미감에 맞게 만들것인가 하여 펴리는 사색으로 새날을 맞이한 기술일군들…

그들은 모두의 가슴속에 얼마나 뜨거운 것이 고마워 고맙다.

실력있는 기술인재로 준비하기 위하여 배운 지식을 공고히 다져나가고 있다.

— 해주정보기술전문학교에서 —

2010년 아시아컵녀자축구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팀이 맨마팀을 2:0으로 이겼다

【평양 5월 23일 발 조선 중앙통신】 중국의 정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0년 아시아컵녀자축구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팀이 맨마팀을 이겼다.

우리 선수들은 다양한 기술 조별리그 1조 첫 경기에 타이틀을 3:0으로 물리친 우리 선수들은 22일 맨마팀과 대전하게 된다.

네 아들을 초소에 세운 자랑

평양시 송석축산전문협동농장 백천섭동무의 가정

평양시 송석축산전문협동농장에는 네 아들을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가정이 있다. 제4작업반장인 백천섭동무의 가정이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특히 조국보위의 기본력량인 청년들이 조국보위를 풍미하는 청년들이 조국보위를 최고영예로, 최대의 애국으로 여기고, 당시의 군사·증시사상을 종대로 억제해 밟아내거나며 조국보위초소에서 청진실지를 끌어내고 있다.》

우리가 백천섭동무의 가정을 찾았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운 것은 벽에 나란히 걸어놓은 4형제의 조선인민군입대증이었다.

알고보니 막내 아들 백영길, 둘째 아들 백영근, 셋째 아들 백영춘, 넷째 아들 백영필이 차례로 인민군대에 입대한 자랑 많은 가정이었다.

4형제의 아버지인 백천섭동무는 자식들을 키워 조국보위초소에 보내는 것은 공민의 승하고 의무가 아닌가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4형제의 할아버지인 백종은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12·1·1 고지에서 원수들과 싸운 전쟁로병이었다.

다음에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가를 말해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위대한 장군께서 또다시 어느 회복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을 전성웅동무는 형식에서 전해들게 되었다. 그의 두부로는 뜨거운것이 풀리고는 공장으로 들어온 일군들의 그런

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이 뜨겁

게 것들이다.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기뻐하는 위대한 장군께서는 빠른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오면 안되겠는가고 말하였다.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출장준비를 서둘렀다. 일군들이

다른 면으로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오면

는 일군들의 요구성을 높여야 함

니다.》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기뻐하는 위대한 장군께서는 빠른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오면

는 일군들의 요구성을 높여야 함

니다.》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기뻐하는 위대한 장군께서는 빠른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오면

는 일군들의 요구성을 높여야 함

니다.》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기뻐하는 위대한 장군께서는 빠른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오면

는 일군들의 요구성을 높여야 함

니다.》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기뻐하는 위대한 장군께서는 빠른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오면

는 일군들의 요구성을 높여야 함

니다.》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기뻐하는 위대한 장군께서는 빠른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오면

는 일군들의 요구성을 높여야 함

니다.》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기뻐하는 위대한 장군께서는 빠른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오면

는 일군들의 요구성을 높여야 함

니다.》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기뻐하는 위대한 장군께서는 빠른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오면

는 일군들의 요구성을 높여야 함

니다.》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기뻐하는 위대한 장군께서는 빠른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오면

는 일군들의 요구성을 높여야 함

니다.》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기뻐하는 위대한 장군께서는 빠른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오면

는 일군들의 요구성을 높여야 함

니다.》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기뻐하는 위대한 장군께서는 빠른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오면

는 일군들의 요구성을 높여야 함

니다.》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기뻐하는 위대한 장군께서는 빠른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오면

는 일군들의 요구성을 높여야 함

니다.》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기뻐하는 위대한 장군께서는 빠른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오면

는 일군들의 요구성을 높여야 함

니다.》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기뻐하는 위대한 장군께서는 빠른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오면

는 일군들의 요구성을 높여야 함

니다.》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기뻐하는 위대한 장군께서는 빠른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오면

는 일군들의 요구성을 높여야 함

니다.》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기뻐하는 위대한 장군께서는 빠른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오면

는 일군들의 요구성을 높여야 함

니다.》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기뻐하는 위대한 장군께서는 빠른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오면

는 일군들의 요구성을 높여야 함

니다.》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기뻐하는 위대한 장군께서는 빠른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오면

는 일군들의 요구성을 높여야 함

니다.》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기뻐하는 위대한 장군께서는 빠른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오면

는 일군들의 요구성을 높여야 함

니다.》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기뻐하는 위대한 장군께서는 빠른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오면

는 일군들의 요구성을 높여야 함

니다.》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기뻐하는 위대한 장군께서는 빠른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오면

는 일군들의 요구성을 높여야 함

니다.》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기뻐하는 위대한 장군께서는 빠른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돌아오면

는 일군들의 요구성을 높여야 함

니다.》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라면 비록 그것이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처럼 기뻐하는 위대한 장군께서는 빠른 몸으로 어떻게 면길을 다녀오겠는가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대책을 세우



# 과학기술로 자립경제의 위력을 과시하는 조선

지난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고 제2차 핵시험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신군조선의 막강한 국력과 최첨단과학기술수준을 힘입어 시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열마진 핵융합반응에 성공함으로써 또다시 세계를 뒤흔들어놓았다.

국제 사회계는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훌려선 주체조선의 위력에 경탄과 부러움을 금지 못하면서 우리의 무궁무진한 경제기술적 잠재력을 강성대국의 빛나는 승리를 확인하고 있다.

주체사상연구소에 전국 위원회는 성명에서 조선이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은 위대한 레도자이신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따라 조선이 도달한 우주과학기술발전의 높은 경지를 보여준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이다고 지적하였다.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은 조선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서의 위용을 세계민방에 퍼시하고 있다. 1998년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를

## 국제사회계가 격찬

단방에 쇄울려 세계를 놀래웠던 조선은 «광명성 2호»를 쇄울림으로써 위성발사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였다고 말하였다.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은 조선의 위성발사의 중요 의의는 두루한 자력생성의 혁명정신을 지닌 조선인민이 마음만 먹으면 그 무엇이든 만들면 떨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과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은 이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다. 나라의 과학기술수준과 경제적 잠재력을 과시한 학교국의 위성발사는 조선인민이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강성대국이 결코 먼 앞날의 일 아니라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미하이포민 «우니아드 나찌오날»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네덜란드인 «찌르짜»는 발전 도상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조선에서 인공지구위성을 우주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데 대해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하면서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이룩한 성과는 제국주의적 사고, 침략적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저들을 제거하고 세계 각 어떤 나라도 학이나 우주과학기술과 같은 최첨단기술을 발전시켜서는 안된다며 격찬하였다.

조선 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여 남조선이 합선침몰사건을 구실로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조선이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그에 맞게 단호히 대처해 나갈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이 위험을 예상하는 조치에는 북남관계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전면철폐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성명은 남조선이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합선침몰사건을 의도적으로 조선과 경계부진에 대해 규탄하면서 이를 조선에 대한 엄중한 탄핵으로, 로불적인 선전포고로 끌어하고 조선반도는 지금 당장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기일발의 구면에 처해있다고 지적하였다.

로씨아의 이파트-파쓰통신은 조선 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성명에서 남조선의 합선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만족스럽게 여겨 함께 북침전쟁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면밀히 재산된 도발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까닭했다.

미국의 VOA 방송, 일부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아사히신문», 카트의 «일자제리» 위성TV 방송, 체스프로주체사상연구 및 구현조선과 백두산체스포조선친선협회 인터넷 공동홈페이지 «조선-백두산» 도 조선 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전하였다.

본사기자는 보호와 리용에서 심각한 문제들을 산생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그는 이것을 막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할 필요성을 대해 강조하였다.

오늘날 환경오염이 물자원을 발표하여 합선침몰사건을 의도적으로 조선과 경계부진에 대해 규탄하면서 이를 조선에 대한 엄중한 탄핵으로, 로불적인 선전포고로 끌어하고 조선반도는 지금 당장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기일발의 구면에 처해있다고 지적하였다.

로씨아의 이파트-파쓰통신은 조선 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성명에서 남조선의 합선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만족스럽게 여겨 함께 북침전쟁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면밀히 재산된 도발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까닭했다.

성명은 근 두달 동안이나 조사를 진행해온 학교체육당이 어디서 주어온 것인지 알수도 없는 파편과 둔조각 같은 것을 «증거물»로 내놓았다고 하면서

본사기자는

부탄평보통신은 부탄에서 남아시아지역협조련합 수뇌자 회의가 개최된다는 자기 나라에서 전례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경제전문가들은 부탄의 이번 회의개최가 이 나라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것은 오늘날 발전도상나라들이 지역적 협조를 확대 강화하는 것을 자기의 사회경제발전과 민족적 번영을 이루기 위한 판관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기간 발전도상나라들은 비방증상해지였지만 아랍나라들을 비롯한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성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서방나라들이 이 연제건설에 대해 완전히 지원해 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기간 발전도상나라들은 지역적 협조에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많은 협조를 강화할 것을 호소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뻬로코리브» 성원들이 지난해 여러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여 그들의 정부는 이 지역협조의 목표를 달성을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하였다.

제 16 차 남아시아지역협조련합 수뇌자 회의에서 2건의 중요한 협정이 조인되었다고 하면서 회의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 강조하였다. 남아시아 지역협조련합의 장으로서 선출된 그는 이번 수뇌자 회의에서 «남아시아지역협조련합이 지역협조의 목표를 달성을하기를 기대한다. »고 말하였다.

부탄으로 말하면 인디아와 중국국이 위치한 작은 내륙국이다. 부탄의 수도 텁푸는 해발 2 300m 이상의 고峻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10만 명에 불과하다.

하기에 부탄에는 이웃나라 국가 및 정부수반인 오는 일은 있었어도 이번처럼 여러 나라 수뇌자들이 동시에 방문한 적은 없었다.

이러한 부탄이 자기 나라 력사에서 전례없이 규모가 큰 국제회의를 개최한다는 이번 회의를 위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중요 한 계기로 삼으려는 의도가 그 리면 놓여있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이 고변연하는 새 사회, 새 세계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지역적인 단합과 협조를 실현하는 것은 인류공동의 넘으로, 막을수 없는 세대적 추세로 되고 있다.

최근 양풀라대통령은 어느 한 행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서로 도와주고 협조할 때만 진보와

이다.

주체과학 만세!

한편 로씨아의 이파트-파

쓰통신이 1 2일 김책공업종

합대학을 소개하는 글을 보도

하였다.

통신은 1948년 9월 27

일에 창립된 김책공업종합대학

은 조선의 주요대학의 하나

로서 위험한 과학기술인재 양성기

지로 되었고 적극적이다.

성명은 태양절을 맞는 뜻깊

이 시기에 조선의 과학자들이

핵융합반응에 성공한 것은 과학

기술분야에서 거대한 시험과

도구를 마련한 것으로

서 위험한 과학기술인재 양성기

지로 되었고 적극적이다.

핵융합의 성공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도서관에서 학용함에 성

공한 것과 관련하여 영국선군정

국의 주체적이며 자립적인 최

첨단과학기술발전의 새로운 경

지로 되었고 적극적이다.

통신은 대학의 자랑

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통신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도서관에서 학용함에 성공한 것은

조선의 주요대학의 하나

로서 위험한 과학기술인재 양성기

지로 되었고 적극적이다.

통신은 대학의 규모를 소개

하고 대학에서 교육방법과 내

용을 책임져야 하는 학생

들을 정보보도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인재로 키우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대한 정치사상과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

대하여 서와 이곳 출신들이

나라의 과학연구부문과 인민경

제여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보도

하였다.

본사기자는

미국이 «군축»의 막뒤에서 무력증강에 더

욱 박차를 가지고 있다.

최근 스위스신문 «노이에 쥬리에르 짜이퉁»

은 미국이 2004년부터 유럽나라들과 공동으

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중거리반항공공체계의 개

발정형을 전하였다. 그에 의하면 전자체계를 갖

추고 기동성이 높은 이 반항공체계는 순항미사일

과 무인기 등에 의한 공중타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현재 개별적 소요품에 대한 시험과

마지막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유

럽나라들이 군사기술분야에서 공동으로

전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중거리반항공공체계로 말하면

그 누구의 «미자일위협»을 막기 위한 것

것이다. 미국은 세계 도처

에 반항공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이루어낸다. 그 누구의

«미자일위협»을 막기 위한 것

이다. 미군은 세계 도처

에 반항공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이루어낸다. 그 누구의

«미자일위협»을 막기 위한 것

이다. 미군은 세계 도처

에 반항공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이루어낸다. 그 누구의

«미자일위협»을 막기 위한 것

이다. 미군은 세계 도처

에 반항공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이루어낸다. 그 누구의

«미자일위협»을 막기 위한 것

이다. 미군은 세계 도처

에 반항공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이루어낸다. 그 누구의

«미자일위협»을 막기 위한 것

이다. 미군은 세계 도처

에 반항공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이루어낸다. 그 누구의

«미자일위협»을 막기 위한 것

이다. 미군은 세계 도처

에 반항공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이루어낸다. 그 누구의

«미자일위협»을 막기 위한 것

이다. 미군은 세계 도처

에 반항공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이루어낸다. 그 누구의

«미자일위협»을 막기 위한 것

이다. 미군은 세계 도처

에 반항공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이루어낸다. 그 누구의

«미자일위협»을 막기 위한 것

이다. 미군은 세계 도처

에 반항공체계를 수립하는 것을

이루어낸다. 그 누구의

«미자일위협»을 막기 위한 것

이다. 미군은 세계 도처